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필리핀 수빅에 위치해 있으며 다운타운(학생들이 주로 가게 되는 중심가 하버포인트 & SM Mall이 위치해있는 곳) 과는 택시를 타고 약 10~15분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져 안쪽으로 들어가야하는 곳에 위치하였으나 접근성이 좋은 편이었고 낙후 되어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우리끼리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SLC의 시설은 조금 오래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였습니다. 중간에 숙소를 이동하게 되며 숙소와 교실이 바뀌었으나, 바뀌기 이전의 교실들은 에어컨도 잘 되었고 클래스를 운영하기에 적당한 규모였습니다.
파견대학	SLC의 기숙사 시설은 넓고 쾌적한 편이었습니다. 3인 1실이지만 좁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각자 개인 책상 및 침구가 서로의 동선에 피해를 주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잘 준비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각각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었고 와이파이도 굉장히 잘 났습니다. 중간에 숙소가 바뀌면서 바뀐 숙소에서는 와이파이가 안됐지만 SLC 같은 경우에는 각방마다 와이파이가 잘 터졌기 때문에 굳이 따로 도시락이나 개인용 와이파이는 안 가져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마음껏 봤습니다!! 참고로 티빙이나 넷플릭스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킬링 타임용으로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미리 다운 받아 오시는 편이 좋을 듯함. 근데 저는 딱히 영화를 볼만한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지는 않음) 세면대는 방 한쪽에 따로 위치해 있었고 화장실 안에는 변기와 샤워 공간이 있었습니다. 샤워기도 변기도 모두 잘 작동되었습니다.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샤워기 물줄기가 약해서 버디 티쳐들에게 점호 시간에 말씀드렸

	더니 확인하시고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건 챙겨오지말고 룸메들끼리 나눠서 사라고 추천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용으로 소분된 샴푸와 바디용품을 여러 개 구매해서 챙겨왔는데 한번 사용할 때마다 버리게 되니까 나중에 한국 갈 때 짐이 없어서 편했습니다. 더 편할 것 같은 방법으로 각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에서 벌레가 나오기는 했으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첫 날 수빅 투어 끝나고 바퀴벌레 약을 큰 걸로 하나 구매해서 벌레가 나올 때마다 사용했는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방에서 도마뱀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 주로 바퀴벌레 및 개미인데 생각보다 개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간식 먹고 나서 꼭 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병 같은 건 물로 한번씩 헹구두시고 쓰레기들은 한 곳에 잘 두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방 정리 및 청소, 쓰레기 잘 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빨래할 때 개인 빨래가 섞이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꽤 빈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비싼 옷은 안 가져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잃어버리면 안되는 옷은 개인 세탁하였습니다. 물론 깨끗이 세탁해주시지만 개인 세탁소가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은 크게 1:1 수업과 그룹 클래스로 나눌 수 있는데 1:1 수업은 Reading 과 Vocabularly 수업을 각각 2번씩 진행하였고 그룹 클래스는 토익 스피킹 수업(2회), face2face 수업, mmc (영상 관련)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1 수업은 말 그대로 선생님과 1:1로 수업을 하는 것이고 그룹 클래스는 조원들과 듣는 수업입니다. 선생님 별로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할 것은 없지만 주로 어제 뭐 했는지, 오늘 뭐 할건지 등 간단한 질문과 함께 시작하고,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말을 많이 했고 특히 1:1 수업은 선생님만큼 저도 많이 말을 해야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의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쉬운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딱 적당했습니다. 첫 수업하고 나면 티쳐들도 수준을 고려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1:1 티쳐의 경우 본인과 맞지 않는다면 버디 티쳐에게 말씀드리면 바로 조정해주시니 혼자 안 맞는다고 앓을 필요 없습니다.

	과제는 티쳐별로 다르지만 웬만하면 잘 안 내주셨고, 내주시더라도 구글에 서치 하면 10분~15분 이내로 끝나는 숙제들이었습니다. 간혹가다 검색하는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하는 숙제를 내주시는 티쳐들도 있었는데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내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수업들은 전반적으로 수업 때 열심히 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마이크 테스트를 봤었고 마지막 파 이널 테스트 기간에도 따로 마이크 테스트를 봤기 때문에,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복습..? 하시는 게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준비를 안 하거나 한번 배웠던 것을 훑어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mc 같은 경우에는 첫 주에는 수업이지만 그 다음주부터는 거의 영상 제작과 관련된 활동들을 합니다. 노트북은 이왕이면 챙겨 오시는 편이 좋고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미리 프로그램도 다운 받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다들 너무 친절하고 좋으니까 겁 먹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한 분들이니까 말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후기에서도 아시겠지만 마지막이 되면 티쳐들에게 편지도 써드리고 싶어지고 선물도 해주고 싶어하는데 이왕이면 미리 사서 오세요,, 편지지도 미리 구매해오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선물할 만한 것도 없고 편지지도 안 예뽀 ππ 미리 다이소 같은 곳에서 편지지 사오시길 추천드립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매주 토요일은 activity 데이라서 출국하는 마지막 주를 제외하면 총 3번의 Activity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도착하고 첫 날에는 레벨 테스트 본 뒤 수빅 투어를 갔습니다. 랜덤으로 조원 정해서 티쳐 한명과 같이 환전도 하고, 유심도 사고, 지프니도 타면서 전반적으로 수빅을 둘러보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첫째주 토요일에는 수빅에서 40분~1시간 정도 가야하는 바탄 리조트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둘째주에는 수빅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Mountain Samat 이라는 곳에 가서 같이 조원별로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요트 투어를 갔었습니다. 요트에서 밥도

	먹고 바다 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짧아 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준비물은 전 날 점호 시간에 버디 티쳐들이 공지 해주는대로 준비해가면 됩니다. 따로 추가 비용을 내서 하는 활동들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다른 곳을 나가다보면 살 것들이 생기거나 먹고 싶은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은 꼭 챙겨서 갔었습니다. 모든 활동들이 저는 재미있었고 웬만하면 액티비티데이에는 안 해봤던 것들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액티비티데이에 사진 많이 찍게 되니까 예쁘게 하고 가세요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에어컨이 있지 않는 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납니다 온도도 높지만 습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을 가져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무리 짧아도 통풍이 안 되면 똑같이 덥기 때문에 린넨 같은 얇고 가볍고 시원한 소재의 옷을 가져오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선풍기 꼭 챙겨오세요 밖에 돌아다닐 때 매우 유용합니다. 안가져와서 후회했습니다.. 여기서는 미니 선풍기가 비싸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져오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도 수업하는 장소는 에어컨이 아주 썩고 이곳에서도 감기를 꽤 잘 걸리기 때문에 긴 옷 하나씩은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후드 집업 챙겨갔는데 아주 유용하였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모든 건물이 있는 곳에는 짐 검사가 필수이고 길 가다보면 종종 경찰들도 자주 마주칩니다. 모든 건물에서 짐 검사를 하기도 했고 각 건물마다 경찰 같은 분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특별히 현지인들이 많이 있는 구석진 곳을 가지 않는 한 위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딱 한번은 조금 외진 곳을 가기는 했는데, 그 때는 6인 이상이었습니다. 구석진 곳이나 외진 곳은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꼭 밖에 돌아다닐 때는 2

숙소	명 이상 다니시기를 권장합니다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저녁 같은 경우 나가서 먹을지 안에서 먹을지 투표 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밥도 아주 입맛에 잘 맞아 잘 먹고 다녔습니다. 주로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거나 구경하느라 저녁은 안에서 보다 밖에서 많이 먹었던 것 같은 수업 끝나자마자 저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간 적도 많습니다. 돈 아끼고 싶으시다면 저녁 먹고 나가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음! 밥 진짜 맛있으니까 고추장 이런 거 안 챙겨와도 됩니다.. 한식 2 필리핀 식 1 이런 비율이고 국은 거의 한식 스타일이고 밥도 그러니까 걱정마세요
교통	시내교통 관련 주로 4~6인끼리 택시 타고 다녔습니다. 5인 기준 한번 타면 30페소 한국 돈으로 약 600원 정도 주고 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0 이상 절대 주지마세요.. 택시 타기전이나 타고나서 how much 라고 묻는 것보다 그냥 도착지에서 내릴 때 120정도 주고 내리는 편이 더 싸게 탈 수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돈 다르게 받는다고 택시 기사들은 그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대한 깎을 수 있는 만큼 저는 깎아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sm 몰 앞에서 택시타면 흥정 잘 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

위:500,000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합계		약 5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1. 돈은 기본 500 달러 이상 가져오는 게 좋음

400 달러 가져왔는데 너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돈 또 뺏아서 사용했어요 주변에는 500 가져와도 돈 뺏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술 값이 정말 많이 듭니다..

2. 선생님들 선물 및 편지는 미리미리

3. 옷 많이 가져올 필요 없음 (짐은 최대한 간략히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챙겨주세요) 근데 아무렇게나 사용할 슬리퍼는 하나 챙겨오는게 좋음

4. 비상약은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편이 확실히 도움됨

5. 샤이닝 스타로 마사지 받으러 가지 마시고 톤톤으로 가세요.. 아로마 보다 드라이가 더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여기서 네일 받으실거면 하버포인트가서 받는게 제일 나음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싶어서 현지 영화관도 갔었고 수영도 자주 했었고 밖으로 나가서 밥도 버블티도 많이 마셨는데 !!! 이젠 다 추억이 되었네요

필리핀 가신다면 최대한 많은 것들 사람들이 해본 것들도 해보고 안 해본 것들도 다 해보세요!!!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이것저것 도전해보세요

방에 틀어박혀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뭐라도 보는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감.. 그러니까 돈은 500달러 이상 가져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필요한 자세는 적극성인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도 이왕이면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 놀 때도 하나라도 더 구경하고 하나라도 더 먹어보고 직접해보고 그런 적극성이 추억을 만들고, 후회는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의 4주 언제가나 싶지만 정말 짧습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가니까 순간순간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든 노는 것이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다보면 4주가 정말 재미있게, 금방 지나가게 될 거 예요!!

지레 겁먹지말고 즐기기!!

제 개인적으로는 영어 실력이 확 늘었다기 보다는 외국인들과 말 할 때 겁먹지 않는 것, 영어로 말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했다면 이제는 틀려도 자신감 있게 한 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한다는 점, 등등이 향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도 분명히 향상되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감은 정말 많이 향상되고 영어로 어떻게

말 해야하는지 등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4주를 통해서 이전까지는 영어라는게 그저 공부였다면 이제는 좀 더 언어로 다가오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추천드려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수빅투어	Mountain sam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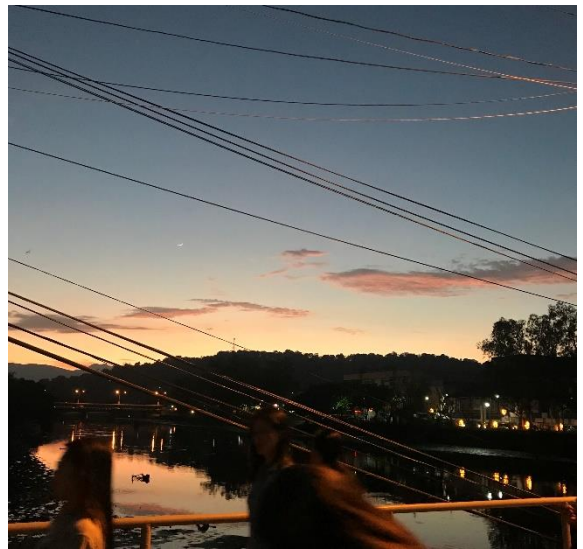
요트 투어



요트투어



수빅투어



하버포인트에서 sm mall 가는 길